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거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6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성육신의 신비!

크리스마스를 위한 찬양의 하모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육신은 신비입니다. 이 신비를 피조된 우리들이 완전히 이해하고 알기란 불가능합니다. 단지 우리는 신비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뿐입니다(골 1:27). 그러므로 오직 믿음만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잠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눅 19:40).

지금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아 하나가 되었습니다(고전 3:11). 예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마 16:24). 특별한 매주 금요집회를 통한 성탄 찬양의 시간은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품게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내내 드렸던 "거룩한 성"을 통해서 오직 새 예루살렘이 있는 천국만을 소망하기에 "거룩한 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나신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헨델의 메시아 42번 곡인 "할렐루야"(제 19:6,16)뿐만 아니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한 풍성한 성탄 찬양의 하모니는 매주 금요일마다 계속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탄 찬양이 금요일 저녁에만 노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에 통해서 드러나는 찬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요 1:3).

매주

금요집회를 통한

성탄 찬양을

예수님을 향한

매일의 삶이

되어야 한다!

수해를 입으신 분들을 향한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담전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느니라"(고후 1:5)

갑작스런 폭우로 우리 교회의 성도들뿐 아니라 많은 이웃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질적인 피해만이 아니라 다치거나 심지어 죽음에 이른 분들도 계십니다. 이처럼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려 슬픔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마 12:31). 특히 이들 중에는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여 더욱 큰 슬픔에 처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들을 향해서 봉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복구에 필요한 실제적인 도움과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려 합니다. 또한 다음 주일(30일), 예배 시에는 '수해 구제헌구'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귀한 일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당한 피해가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약 5:13). 이 시대의 다비다(행 9:36)와 고넬료(행 10:31)는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개여, 이 말씀을 들으라!(금요집회)

반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창 22:7)

"반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창 22:7)라고 심각하게 질문하는 독자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반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라고 답변하며 참된 믿음의 길을 걷는다. 또한 이 질문에 가장 아름다운 대답은 메시아를 증거하는 세례 요한의 증거로부터 확실하게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 죽을 자들을 향하여 외친다(요 1:29). 이 말씀이말로 가장 영광스럽고 거룩한 대담이다. 가령 하늘에 있는 거룩한 천사가 타락한 천사들과 연합하여 죄에 빠져 무서운 심판을 받을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을 구하고자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반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라고 질문할지라도 가장 영광스럽고 거룩한 자리에 있거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전혀 없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피조물의 신비이다.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피조물의 가장 높고 귀한 어떤 생각과 방법도 능가하심을 우리는 바라본다(고후 5:21).

"스스로 계신 자", 피조물의 말로는 표현조차 할 수 없는 거룩하신 자는 그의 영광을 죄인들에게 찬란하게 나타내어 주신다(요일 1:7). 죄와 죄인들을 불에 태워 소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과 의함이며 또 내가 죄인일진대 나의 구원은 참으로 불가능하며 있을 수가 없음이 분명한 것을 알아야 한다(행전 3:18; 마 19:26).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반제물이 되셔서 친히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불 속으로 들어가신 것이다. 이렇게라도 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되신 것이다. 지옥으로 가만히 망망한 죄인들이건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청을 받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될 수 없는 신비 중의 신비요, 하나님께 영광도 사당이다(롬 11:33, 36). 복음, 구원의 소식, 은혜의 언약은 우리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도록도 위대한 것이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신령 중에 거하시는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불쌍한 인간을 위하여 이 은혜의 언약이 되신 것이다. 인생들에게 친히 하나님이 되시고 남편이 되시고 영원한 기쁨이 되심은 신비 중의 신비다(호 2:19; 사 54:5; 롬 8:17).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다. 이 하나님은 오늘날도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시며, 심판자이시며, 우리를 그의 거룩하신 것과 의로우신 것으로 판단하시며 때에 우리가 망명할 만이 한 그 저주를 선언하시는 분이심을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며 사는 것도 복된 일이다. 거저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나 피조물이 스스로 거룩하여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살리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로 하여금 심오한 경의와 겸손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한다. 우리가 피조물로서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과 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 것과, 특별히 구속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빚진 자임도 보게 하신다(사 61-5).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감히 그의 영광 앞에 누가 설 수 있단 말인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다메섹에서 교만한 사울을 비추일 때 그는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행 9:3,4). 하나님의 높으신 위엄과 영광과 완전함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사모하며 양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기를 깨닫게 된다. 다행은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감탄하여 찬양을 드렸다(대상 29:10-11). 신약의 사도들 역시 찬양을 드린다(요 1:3; 유: 25).

세상에 있는 많은 이단 종교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그 본래의 하나님보다 좀 낮게 생각하는 데서 만들어졌다. 이와 똑같은 상황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실제 생활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본다. 참으로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좀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조물들을 숭배하는 것에 있다(롬 1:21-23). 신자들은 참으로 죄에 대해 심각해야만 한다. 죄의 심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 아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에 있거니와 반제할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인간은 그 무엇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반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온 열방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총을 그의 자손을 통하여 이루어 주셨다. 이제 하나님은 독자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창 22:2).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야만 한다. 자신의 의와 공변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야만 그의 자손과 온 열방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 성경의 가르침은 새 언약의 그 약속을 믿는 자들로 깨닫게 하신다(요 6:45; 롬 24:7). 진실로 은총의 자녀들은 간구해야 한다. "주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에게 행하여 주소서, 나의 눈을 열어 주소서, 주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영광, 사랑, 공의, 은총의 빛을 보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전심으로 자신을 부인하게 하옵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주를 찾게 하시고 그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성도들이여! 너희 지식을 지적 우상에 세워 멀리하라. 자신의 전부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요일 5:20). 아멘.

LITTLE FLOCK

(32) Do not be afraid, little flock, for your Father has chosen gladly to give you the kingdom. (33) Sell your possessions and give to charity; make yourselves purses which do not wear out, an unfailing treasure in heaven, where no thief comes near, nor moth destroys. (34) For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will your heart be also. (Luke 12:32~34)

Many of today's churches and pastors like to preach prosperity messages based on Luke 12:31, "But seek His kingdom, and these things will be added to you." They use the following verse; "Do not be afraid, little flock, for your Father has chosen gladly to give you the kingdom" as an explanation for obtaining material wealth (v. 32). Sadly, most Christian people end up thinking that God is supposed to give them worldly success. If they would read the next verse, "Sell your possessions and give to charity; make yourselves purses which do not wear out, an unfailing treasure in heaven, where no thief comes near nor moth destroys," they would understand that Jesus is not talking about getting but giving. The fact of the matter is that God is only going to give a few people, a little flock, His kingdom, and the small amount of people He chooses are those who sell their possessions, not collect them, and give to charity, not save and store things for themselves. Jesus specifically underscores the main idea, "For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your heart will be also" (v. 34). His message is clearly about heavenly accomplishments, not accumulating earthly things here and now.

Thousands of people gathered around Jesus to hear what He had to say, but He narrowed His words down to a little flock, His disciples, "Beware of the leaven of the Pharisees, which is hypocrisy" (Lk. 12:1). Among the large crowds who wanted to listen to what Jesus had to say, He only talked to a few people, "For this reason I say to you, do not worry about your life, as to what you will eat; nor for your body, as to what you will put on. For life is more than food, and the body more than clothing" (Lk. 12:22&23). The Shepherd and His sheep are small in number. The sheep refer to the church, the body of Christ, the children of grace. Although surrounded by multitudes, Jesus explained the secret of God's kingdom only to His disciples. He told them if they really wanted to know the secret of the Kingdom of God, then they needed to avoid earthly things, but most Christians still refer to Luke 12:31 concerning worldly riches and success, which is dead wrong! Among the thousands of Christians who want to hear Jesus Christ, I sincerely hope He chooses to speak to you.

In today's Bible verses, Jesus says, "Do not be afraid, little flock, for your Father has chosen gladly to give you the kingdom" (v. 32). God wants to give you His kingdom for His pleasure. His joy is in His promise. How can you go to His kingdom? You cannot go unless you are born again. Jesus said, "Truly, truly, I say to you, unless one is born again he cannot see the kingdom of God" (Jn. 3:3). Born again Christians do not belong to this earth. Churches that say, "If you belong to this church, God will give you earthly things," are the opposite of what God says. You are born again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and become a new citizen, "But you are a chosen race,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a people for God's own possession, so that you may proclaim the excellencies of Him who has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His marvelous light" (1 Pet. 2:9). Jesus told Paul that He

was sending Him to the Gentiles "to open their eyes so that they may turn from darkness to light and from the dominion of Satan to God, that they may receive forgiveness of sins and an inheritance among those who have been sanctified by faith in Me" (Acts 26:18). Paul proclaimed,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t is no longer I who live, but Christ lives in me; and the life which I now live in the flesh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up for me" (Gal. 2:20). God's pleasure is in giving you His kingdom.

How can an earthly church join in this kind of happiness? We have to join in the death of Jesus Christ, that way we can have victory. God's kingdom comes from heaven, not earth, so we have to triumph over this earth. Ephesians 2:12&13 say, "remember that you were at that time separate from Christ, excluded from the commonwealth of Israel, and strangers to the covenants of promise, having no hope and without God in the world. But now in Christ Jesus you who formerly were far off have been brought near by the blood of Christ." God's love "raised us up with Him, and seated us with Him in the heavenly places in Christ Jesus" (Eph. 2:6). God gives this victory and all His promises to believers, but there is a condition. We have to obey, which means we have to practice our faith in order to be victorious.

To sell our possessions and give to charity is a way of the life of faith. Everything is God's, not ours. Nothing is ours. If you have something that does not belong to God, then it has to belong to the devil. The first congregation of believers were of one heart and soul, "For there was not a needy person among them, for all who were owners of land or houses would sell them and bring the proceeds of the sales and lay them at the apostles' feet, and they would be distributed to each as any had need" (Acts 4:34&35). Acts 2:44 also says, "And all those who had believed were together and had all things in common." We have to make ourselves "purses which do not wear out" (v. 33). In other words, we need to make new purses and wallets that we offer to God and that relate with His kingdom. We need to exchange earthly treasure with heavenly treasure. It is the ultimate investment, which pays dividends forever. We need to make new bags and use them.

"Hear, O Israel! The Lord is our God, the Lord is one!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ght" (Deut. 6:4&5). My dear friend, the word of God tells us, "For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your heart will be also" (v. 34). Where is your heart? Is it stuck on earthly treasures, like business and money, or heavenly treasures, like the cross? Whatever condition of life you find yourself, no matter what color or religion, the principle is the same. Your heart has to be in heaven. If you really love Jesus Christ with all your heart, then where is your treasure? Where are all your possessions? Please watch yourself. 🙏

다음 주일 설교

적은 무리

(22)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23)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날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24)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누가복음 12:32~34)



김성박 목사

적은 무리여

오늘날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눅 12:31)라는 말씀을 기초로 성공 지향적인 설교를 즐겨 합니다. 그들은 다음 구절을 인용하여 물질적인 부를 취하는 것을 정당화시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32절). 슬프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상적인 성공을 주시기로 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만약 그들이 그 다음 구절인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날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라는 말씀을 읽는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초점이 ‘얻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데에 있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전하는 핵심은 하나님께서 오직 소수의 사람들 곧 적은 무리에게 그 나라를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택한 소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를 모으는 자가 아니라 파는 자들이며, 자기 자신을 위해 저축하거나 쌓아두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강조하십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34절). 주님의 메시지는 분명히 천국에서의 성취에 대한 것입니다. 결코 지금 이 땅에서 세상적인 것을 쌓는 일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외식을 주의하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적은 무리, 곧 제자들에 한해서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눅 12:1).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은 오직 적은 무리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시리라”(눅 12:22, 23). 목자와 그의 양떼는 수적으로 적은 무리입니다. 양떼는 곧 교회, 그리스도의 몸, 은총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수많은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예수님은 오직 당신의 제자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진실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싶다면 세상의 것들을 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세상의 부와 성공에 대해 말하면서 누가복음 12:31을 인용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선택한 무리 속에 여러분이 들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32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그의 약속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그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 3:3).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축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곡해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으며 새로운 시민이 되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9). 예수님

은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케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행 26:18). 바울은 선언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하나님의 기쁨은 여러분께 자신의 나라를 주시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라

그런데 어떻게 세속적인 교회가 이러한 행복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것과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12, 13은 말합니다.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인 양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엡 2:6).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승리와 당신의 모든 약속들을 신자들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다시 말해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실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리라

자신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것은 믿음의 삶을 실천하는 한 방법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무릇인가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마귀의 것입니다. 초대 교회 신자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꺾일만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말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만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라”(행 4:34, 35). 또한 사도행전 2:44은 전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우리 자신이 “날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가 되어야 합니다(33절).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바칠 천국의 새로운 주머니와 전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보화를 천국의 보화로 맞바꿔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투자입니다. 그 배당금이 영원히 지불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주머니를 만들고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신 6:4, 5).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34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이나 물질 같은 이 땅의 보화에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와 같은 하늘의 보화에 있습니까?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또 어떤 피부색이나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원칙은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잘 알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보화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의 모든 소유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실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살피십시오. 

수요1부 예배 메시지

하늘에 간직하신 것 (벧전 1:3~5)

한때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베드로는 십자가의 은총으로 회개한 뒤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벧전 1:1,2). 그는 온 세상을 향해 외치고 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벧전 1:3,4). 베드로는 보혈의 은총을 입은 성도의 소망이 오직 하늘에 있음을 강하게 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알고 산다. 하늘에 산 소망을 두기보다는 이 땅의 아름다운 것만을 갈망하고 있다. 물론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사는 것이 쉽지 않다(벧전 1:6). 그러나 주님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에게 칭찬, 영광, 존귀를 약속하고 계신다(벧전 1:7).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이다(벧전 1:21,22).

하늘에 간직하신 아름다운 소망이 무엇일까? 베드로가 그토록 간절히 외쳤던 '하늘에 간직하신 아름다운 소망'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이미 삼 차원의 세계를 경험했던 바울은 전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고후 5:28). 또한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경험했던 사도 요한도 하늘에 간직하신 아름다운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계 21:4). 우리 신앙의 근본이 하늘에 있어야 한다.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해야 한다. 우리의 숨이 멈추는 그 순간 우리 안을 가득 채우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 세상의 형통과 행복인가? 아니면 주님이 천국 선물인가? 우리는 오직 하늘에 간직하신 아름다운 소망의 실체인 천국만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곳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고 계신다(요 14:3).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영원한 저소를 예비하고 계시며 결국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하실 것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기업을 있게 된다(벧전 1:4). 이 세상인 아닌 '천국'에 영의 눈을 열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자.

천국은 어둠이 없고 광명만이 있다 천국은 해, 달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곳을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 양이 되어 되에 영원한 광명을 주고 있다(계 21:23).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빛이다. "예수께서 또 일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 8:12). 그러므로 천국은 밤이 없다(예 21:25). 반면에 자욱은 어떠한가? 그곳은 어둠만이 존재한다. 소위 믿는 자들로 알려진 "나라의 본 자손들"(마 8:12)도 자욱에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한다. 광명만이 있는 천국을 소망하자!

천국은 희미한 곳은 아니다. 명확한 곳이다 "우리가 이제는 저를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의 내가 부분적으로 아니라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전 13:12).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천국, 성도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 뿐이다. 그러나 천국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명확히 볼 것이다. 소경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앞을 보게 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볼 것이다(요 9장). 특히 이 세상을 살아 가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한다. 이 분별력은 말씀을 통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가능하다(고전 2:14).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이는 천국을 소망하자!

천국은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천국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은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천국에서 우리는 구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 4:16,17). 그런데 천국은 진실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있는가? 혹시 주님이 계시는 천국보다는 당장 이 땅에서의 행복만 삶을 간절히 원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보혈의 은총으로 구속받은 자녀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만을 소망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진실로 천국을 소망한다면 우리에게 맡겨 주신 자녀들을 존중하자.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복음으로 양육하자. 특히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유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와 관계를 맺으며 복음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라 되신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요 1:12). 우리도 오직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어야 한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자신의 전부를 내어 드리자. 이 땅이 아닌 오직 천국만을 소망하자. "제 예루살렘 복된 집 네 이름 높도다 그 성도 언젠 그치고 내 거기 가라가 저 보석으로 세운 성을 보고 싶도다 그 사도들과 성도를 주 예수 모셨"(찬 225장). 십자가의 강줄기로 주여지는 믿음, 소망,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 함께 가길 원한다. 아멘.

복음 안에서 천국 일꾼으로 자라가는 중등 3부



박성호 (목회, 중등 3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전 1:17). 복음 안에서 천국 일꾼으로 자라가기를 소망하는 중등 3부의 모든 종들은 오직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며 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중등 3부는 매 주일 오전 9시에 제1교육관 501호에서 120여 명의 학생과 45명의 교사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 후에는 20개 반과 신입생으로 나누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복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사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일과 심방하는 일은 물론이거니와 주일에도 일찍부터 나와서 예배와 반반 모임을 온전한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장으로 임명받고 처음 중등 3부 주일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 마음이 무척이나 아팠습니다. 생각보다 예배 때로는 학생들의 수가 적었을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산만한 학생들을 보며 마음으로 외웠습니다. 이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음을 회개하였고, 저와 교사들은 그저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습니 다. 그러할 기도하고 십자가만을 붙들니 주님은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깨뜨리셨고 천국 일꾼으로 다듬어 가셨습니다. 아직은 온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신령한 예배와 말씀을 사랑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중등 3부의 2006년도 표어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중학교 3학년의 시기는 인생에 있어 가장 예민한 시즌기 시절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학업에도 집중해야 할 참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영혼을 돌려다볼 때 배가 들어 있을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이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길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완전한 선생님이시고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기에 중등 3부의 모든 종들은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과 잎을 맺음같이 참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중등 3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날마다 생령수를 공급받고 자라서 오직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중등 3부의 모든 학생과 선생님들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나지 않고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십자가 증인으로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엡 3:7).

내 인생에 주신 마지막 기회

나이도 많은 내가 기도하면서 단기 선교팀으로 나갈 것을 결정한 것은 내 인생에 주신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강한 몸 주시어 다리에 힘이 남아 있을 때 마음껏 복을 전하고 싶은 갈망이 훈련과 교육을 감당케 하였고 선교지로 나아가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은 전직인 주님의 은총이었다.

사역할 때도 8학 9월간 힘 주시어서 최선을 다하게 하신 예수님! 성령의 인도하심따라 만난 영혼들 중에 심지가 이미 꺼져 가고 있는 분, 초점을 잃은 영혼도 있었다. 그러나 꺼져가는 심지가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은 그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놓으셨고 마음의 문을 열어 주셔서 심자가 구원의 복음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셨다. 환한 미소로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하시며 "아멘, 아멘"을 수없이 반복하며 환한 웃음으로 우리 쪽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얼굴에 환한 빛이 밝히는 것 같았다.

물 부족과 열악한 잠자리에도 모든 팀원들이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지하여 마음을 합하게 하고 주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은혜롭게 사역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린다. 이제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을 자라게 하고 기쁨의 열매를 거두며 십자가의 복음으로 주님의 교회가 그 땅 가운데 세워지길 기도할 뿐이다.

김남진(전사, 9교구)

눈물을 글썽이며 복음을 영접할 때면...

나 자신을 부인하며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담대하게 십자가 복음만 전하도록 기도했다. 주께서 예비한 영혼들을 많이 만나게 해 주셨고, 복음을 전할 때 제지받지 않고 마음껏 전할 수 있었으며 대부분 끝까지 잘 들어 주었고 호의적이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육토로 준비시켜 주시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며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영혼들이 영접기도로 주님을 영접했으며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다. 통한 입술로 복음을 전할지라도 눈물을 글썽이며 복음을 영접할 때면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다.

한 중년의 신사가 기억에 남는다. 용모와는 달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표정이었고 감히 말 붙이지조차 어려운 분위기였다. 담대한 용기를 주신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으십니까?" 고개만 흔들었다. 전도지를 주며 "예수님 믿으세요!" 해 도 전도지를 거부하며 고개를 흔들었다. 순간 예수님을 믿기 전 여러 차례 전도를 받았지만 품으신 주님을 마음으로, 말로 고개를 흔들며 예수님을 거부했던 나를 돌아보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를 따라가며 억지로 전도지를 손에 쥐어 주며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복음을 전한 뒤 다른 영혼을 향해 가면서 "저 영혼을 살려주세요." 기도하며 뒤돌아보니 전도지를 얹으면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 영혼이 구원받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주의를 위한 일꾼이 되길 소망했다. 맑고 순수한 많은 영혼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린다.

김정래(집사, 1교구)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7월 24일(월) ~ 8월 1일(화)	9교구 5지역	동방동운
7월 24일(월) ~ 8월 1일(화)	외선부 2팀	조영구
7월 24일(월) ~ 8월 1일(화)	4교구 7지역	최민석
7월 24일(월) ~ 8월 1일(화)	16교구 8지역	김재호
7월 24일(월) ~ 8월 2일(수)	1교구 1지역	최세진
7월 24일(월) ~ 8월 2일(수)	16교구 1지역	김성수
7월 24일(월) ~ 8월 2일(수)	17교구 2지역	유재훈
7월 25일(화) ~ 8월 1일(화)	6교구 4지역	엄복섭
7월 25일(화) ~ 8월 1일(화)	17교구 4지역	이창우
7월 25일(화) ~ 8월 2일(수)	9교구 7지역	김연태
7월 25일(화) ~ 8월 2일(수)	10교구 6지역	강만호
7월 25일(화) ~ 8월 3일(목)	10교구 2지역	장영환
7월 26일(수) ~ 8월 4일(금)	4교구 11지역	이희우
7월 26일(수) ~ 8월 4일(금)	15교구 1지역	강석화
7월 26일(수) ~ 8월 5일(토)	8교구 1지역	김철남
7월 27일(목) ~ 8월 4일(금)	18교구 4지역	김흥기
7월 27일(목) ~ 8월 4일(금)	11교구 7지역	박찬서
7월 29일(토) ~ 8월 4일(금)	할렐루야찬양대	문경안
7월 29일(토) ~ 8월 5일(토)	청년2부 1팀	강천석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7월 11일(화) ~ 7월 18일(화)	대학부 20팀	전계식
7월 11일(화) ~ 7월 18일(화)	대학부 21팀	이계인
7월 11일(화) ~ 7월 18일(화)	대학부 23팀	배춘식
7월 11일(화) ~ 7월 20일(목)	대학부 35팀	윤선한
7월 12일(수) ~ 7월 19일(수)	2교구 8지역	이상해
7월 12일(수) ~ 7월 20일(목)	대학부 26팀	신광철
7월 12일(수) ~ 7월 20일(목)	대학부 27팀	유종식
7월 12일(수) ~ 7월 20일(목)	대학부 29팀	박덕양
7월 12일(수) ~ 7월 20일(목)	대학부 32팀	윤석민
7월 13일(목) ~ 7월 21일(금)	12교구 3지역	최경하
7월 14일(금) ~ 7월 22일(토)	청년1부 6팀	김신국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의 심령에 새겨지길!

마을에는 거의 모든 젊은이들이 외국으로 일하러 떠났고, 남아 있는 사람의 대부분이 노인과 아이들이었다. 그나마 술에 취해 있는 이들이 겨우반이었다. 집집마다 포도나무가 많아 그것으로 술을 담곡 먹는다고 했다. 마을 입구와 우물 옆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모습은 마치 옛날 천하 대장군을 섬기던 우리 조상들과 유사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들은 대부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 이들은 98% 이상이 그리스도 종교회 고인들이었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였다. 복음을 들고 영접한 자도 있었고 일부만 인정만 자, 또는 거부하는 자도 있었다. 어쨌든 입술로 주님의 복음을 전함에 너무나도 연약한 자임을 깨달으며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의 심령에 임하길 간절히 기도했다. 낯선 외국인들을 신기해 하며 반신반의했던 그들이 한국말로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아멘" 할 때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또한 어느 마을에서는 집집마다 키우고 있는 큰 개를 때문에 전도하기가 무척 곤혹스러웠다. 그러나 마을 첫 집에서 전도한 세 살, 다섯 살, 일곱 살짜리 형제와 앞장서서 개들을 쫓아주며 우리를 전도해야 할 집으로 인도해 주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어린이들까지 사용하시어 복음의 동역자들로 세워 주심을 감사하였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고전 3:7).

박귀호(집사, 14교구)

십자가의 복음으로 풍성한 여름 수련회

예수님을 만난 천국 잔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 22:20)라는 주제 성구를 내걸고 마련된 소망부의 제31회 여름 수련회는 지난 7월 4일 단 하루의 일정이었지만, 그 어느 수련회보다도 알차고 은혜 풍성한 잔치였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유익한 수련회를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행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와 치밀한 계획, 그리고 일사 불란한 진행으로 모든 참석자들이 참으로 십자가를 깨달으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해 주신 소망부를 섬기는 모든 종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첫째로 짜임새 있는 시간 계획과 그 계획을 정확하게 실천하여 모든 과정이 정해진 시간 내에 완만하게 진행되어 좋았으며, 둘째로 개회 예배부터 영성 훈련, 그리고 폐회 예배로 이어지는 말씀과 신앙 특강 및 신앙 간증 등의 모든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일관성 있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로운 내용이었으며, 셋째로 특강과 간증을 비롯하여 특별 찬양 및 율동을 한 총현연림 이집의 귀여운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구성하여 어려운 섭외를 이룬 성의와 노력의 흔적들이 여가자에게 배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으며, 넷째로 영의 양식뿐 아니라 육의 양식 면에서도 점심 식사 메뉴와 배식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어 더욱더 풍성한 천국 잔치가 되었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하여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바울 사도가 하신 간증의 말씀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딤후 4:7,8)라는 그 믿음을 본받아 남은 여생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고 다시 한 번 굳게 다짐하며 십자가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허대선(은빛교회, 소망부)

십자가를 위한 제2의 인생

전날까지 오던 비가 당일에는 맑은 날씨가 되어 구름까지 약간 꺼져서 아주 좋은 날씨 속에서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때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수련회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참조자를 기억하라. 꽃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청년 되기"라는 주제로 성경 공부할 때에는 비록 육신의 나이는 많을지라도 영적으로 청년이라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다들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후 4:16-18). 이번 수련회에 참여한 우리는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발견하였습니다. 바로 80대는 인생의 황혼이 다가오는 시기인데 이 시기를 막연히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십자가를 위해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할 때임을 깨달았기에 우리는 더욱 기도하며 예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김연수(센사, 장년 3부)

회개, 눈물의 회개!

장년 2부 수련회를 위해 오래 전부터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마라나타 중창단(장년 2부 중창단)은 개회 예배, 특강, 폐회 예배, 이렇게 3번 특송을 해야 하기에 하루 전에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하며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개회 예배 전 30분간의 준비 찬양을 인도해야 하기에 더 많은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수련회에 참석자 기도원에 올라온 모든 회원들이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맡아받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찬양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이렇듯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저의 심령에 주님은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참 예배자가 되자!"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무도 형식적이고, 가식과 외식으로 뒤편벽인 나의 예배의 모습을 떠올리며 회개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온전함 예배 행위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히 11:18,19) 온전히 믿으며 주저함 없이 아삭을 번제로 드렸던 아브라함을 통해 내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바치지 못

하고 불독과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달으며 회개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자로서의 삶, 그 삶이 바로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다짐하며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계속된 특강과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도 저는 제 안에 자리잡고 있는 모든 죄를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며 회개하였습니다.

비록 하루의 짧은 수련회였지만 이 시간이 지금까지 그 어느 시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모두의 얼굴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 죽은 자가 아닌 산 자로서, 다시는 사람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신 주님, 늘 그 은혜의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를 완전히 부인하는 자로서 나의 삶이 참된 예배가 되며, 주님 안에서 산 자로서 말씀으로 전신 감주를 입고 영적 지도자로서 복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기도하며 기쁜 마음으로 기도원을 내려왔습니다.

조진숙(침사, 장년2부)

예수님을 만나는 초·중 도서관이 좋아요!



나는 초·중 도서관(제1 교육관 7층)이 생기기 전에는 도서관이 물하기를 꺼려 했었다. 왜냐하면 도서관에 가면 우리들이 볼 수 있는 책이 영 건 되키 않는데다가 그 책들 또한 훼손

되어서 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대다수 이용객들이 어른들이어서 도서관과 꽤지 모를 거리감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초·중 도서관이 생겼서 매우 기쁘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책이 대부분이어서 정말로 좋다. 또한 예

전에는 찢어지고 남은 책을 보다가 새 책을 대하니 기분까지 좋아진다. 또한 영상물 상영관을 통해서 위인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다양한 영상물을 보면서 성경을 배울 수 있어서 나에게 큰 도움이 된다.

또한 도서관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일들도 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처음 생긴 도서관의 책이 더러워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이다. 이용객이 소중히 여기며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깨끗한 책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책을 깨끗이 하고 책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도서관을 쾌적하게 이용하도록 해 주시기 위해 애쓰시는 분들께도 정말 감사하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의 천국 도서관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이 정말로 좋다!

조하은(중동 1부)

교회 탐방 탁아부

아기를 등에 업고! 예수님의 품으로!

주일에 교회 안을 오갈 때면 빨간, 노랑, 초록의 가운을 입고 동동걸음을 치는 선생님들을 자주 만난다. 그분들이 바로 탁아부 선생님들이다. 아기를 등에 업고, 돌에 안고, 기저귀를 갈아 주면서 영육에 깨워 아홉 줄 모르겠다고 고백하는 이들. 그래서 탁아부 교사만은 그만 둘 수 없다는 이 믿음의 일꾼들을 소개한다.



탁아부는 어떤 부서인가?

탁아부는 교회의 우선 목표인 신령한 예배를 돕기 위해 부모들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아기들을 맡아 섬기는 부서입니다. 단순히 아기를 돌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육과 교육을 함께 하는 부서입니다. (김승준 장로, 부장)

탁아부에서는 매 주일 2부 예배 전(오전 8시 30분)부터 5부 예배(오전 4시)까지, 0세에서 7세까지의 영아·유아 및 유치부 아이들이 돌보고 있습니다. 4세에서 7세까지의 유치부는 대학생 봉사자들이 주로 섬기고, 영아·유아는 유아 경음이 풍부하신 교사님들께서 돌보고 계십니다.

(최문실 전도사, 지도)

현재 선생님들이 93명이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현관입니다. 왜냐하면 영아·유아는 1:1을 원칙으로 하고, 유치부는 1:6 정도로 분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안전하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원근 안수집사, 부감)

온전한 탁아부 운영을 위해서?

탁아부는 일에서 움직임을 하시는 20대 선생님부터 아기들을 늘 품에 안고 다니시는 은퇴 교사님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경험 많으신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맡겨진 일에 기뻐하며 성심을 다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이성숙 안수집사)

더 나은 탁아부 운영을 위해서 기도하며 많은 어린이집을 탐방했습니다. 세상에 속한 어린이집과 달리 복음 속에서 안전하고 청결한 탁아부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정원근 안수집사)

탁아부는 단숨에 쉬는 공간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수요일의 교회주변 전도와 급우 집회나 주일 예배에 온전히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아기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다만 고구 모임 때는 선생님들이 유언처럼 아기들을 돌보는 것이지만 가능한 아기들도 고구에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경금 교사)

탁아부에서 행복을 느끼시다면?

아기들이 예수님을 배운후 저러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늘 행복합니다. (조성준 집사)

이곳에서 14년 동안 섬기고 있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을 때의 기쁨이 크기에 앞으로 더 힘을 때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이영순 교사)

탁아부에서 봉사를 하면 먼저 제게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연간 계획에 따라 주 안에서 아기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참 즐겁습니다. (최영준 집사)

함께 찬양하며, 아기들이 작은 손으로 박수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쁘고요. 기저귀를 채우면서도 냄새가 나기는커녕 늘 즐거운 마음입니다. 아기들이 탁아부에서 영적 훈련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보람입니다. (이달순 교사)

복음으로 풍성한 탁아부를 위해서는?

탁아부를 찾는 아이들이 복음으로 풍성한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봉사자들이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영준 집사)

탁아부를 통해서 이런 아이를 둔 부모님들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김승준 장로)

검은이 낫은 자 되어 아기들의 필요를 살피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우의 전사)

탁아부에서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접하여 구원의 확신을 배우는 곳입니다. 아기들이 탁아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최문실 전도사)

모세가 요게벳에게서 배우고 디모데가 유니타와 로이스에게 배웠듯이, 탁아부에는 이런 영적 부모가 많이 있겠다. 유니타처럼 로이스처럼 요게벳처럼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와 찬송을 드리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아기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은 누가 돌보실까? 물론 예수님이시다. 참 근사한 일이다.

(편진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



찬 268장 온 세상 위하여

찬양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통로이다. 교회를 처음 나올 때 찬양을 통하여 뜨거운 은혜로 나의 심령과 온 몸의 생체적 질서가 재편성되는 신약적 체험은 비록 나만의 것은 아닐 것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시 150:6).

찬양의 노랫말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미, 그리고 은혜와 사랑,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 주님의 부르심과 영접,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가 가득한 말씀의 보물 창고이다. 특별히 최근 나는 감사하며 부르는 찬송이 있다.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우리 교회를 앞장세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찬송가 268장 "온 세상 위하여"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는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 6:33)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마땅한 삶인 줄 알면서도 늘 부족하여 회개한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전도와 선교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죄 중에 빠져서 해매는 자들이 주님의 음성 듣고 너 구원 받라.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찬송처럼 "주 예수 이름 힘입어" 땅 끝 어디든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리라 다짐하며 기도한다.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매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중언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시 146:2). 아멘!

정문준(집사, 아멘 찬양대)

♡ 세 · 가 · 족 · 을 · 완 · 영 · 합 · 니 ·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089	이정민	19	청년1부	이성준(4)
2090	신원호	8	청년1부	이민준(8)
2091	이광국	19	청년1부	장신자(17)
2092	최한중	9	청년2부	박병일(18)
2093	천영순	10	장년1부	김예재(10)
2094	김보희	8	청년1부	최경준(8)
2095	방영진	19	청년1부	이정애(14)
2096	조정자	13	장년3부	한성일(1)
2097	김종성	13	장년3부	이효일(17)
2098	이미혜	19	중동3부	김연옥(6)
2099	김지훈	19	청년1부	
2100	한성일	19	청년1부	
2101	유소리	19	중동3부	이근덕(1)
2102	이동형	19	고동부	곽노경(1)
2103	황선희	16	청년2부	홍희순(17)
2104	산사르바트	19	외선부	
2105	홍 기	19	외선부	유태준(12)
2106	바 따	19	외선부	박성진(10)
2107	유 경	19	청년1부	김영은(4)

※ 중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5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모임

1. 남나전도부 전도회장 지부별 월례회
일시: 23일(오늘) 15:10
1지구: 제1교육관 509호 (1,2,3,4교구)
2지구: 제1교육관 601호 (5,6,7,8,9교구)
3지구: 제1교육관 504호 (10,11,12,13,14교구)
4지구: 제1교육관 6층 회와실 (15,16,17,18교구)

별세

1. 이흥봉 타교집사(이일성 집사의 모친, 송개월 집사의 시모, 7교구 둔촌2구역) / 14일 별세, 19일 장례
2. 심덕을·조경남·심영문 타교성도(심영용 성도의 부친, 모친, 형, 관원성 권사의 시부, 시모, 사숙, 6교구 팔림5-1구역) / 15일 별세, 18일 장례

◇ 2006년 여름 계절학교 일표 ◇

부 서	기 간	장 소
유년부	7월 24일(월)~7월 25일(화)	제1교육관 307호
초동부	7월 24일(월)~7월 25일(화)	제1교육관 407호
소년부	7월 24일(월)~7월 25일(화)	제1교육관 507호
고동부	7월 24일(월)~7월 26일(수)	충현기도원
대학부	7월 26일(수)~7월 28일(금)	충현기도원

◆ 전도위원회 회계 감사 실시

전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상반기 회계 감사를 실시합니다.
각 전도회에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기간: 7월 22일(주일)~7월 30일(다음 주일) 대상 기간: 2006년 1월~6월
감사 장소: 전도위원회(교육관 6층)
준비 서류: 금전출납부, 원장, 시산표 1부(2006년 1월~6월), 영수증철, 예금통장

충현복지관 직원 모집

- 1.모집 부문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인 유지부 특수교사 1명
(특수학교 또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아동교육 경험이 있는 자)
2.지원 자격 세례 교인으로서는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
3.제출 방법 서류상사 후 면접
4.제출 서류 이력서(사신 부록), 자기소개서, 주민등록 등본
5.접 수 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충현교회 사무국 ☎ 552-8200(내선 401)
6.모집 기한 2006년 7월 27일(주일)까지
사회복지법인 충현복지재단

교회직원 모집

- 1.모임 부문 경비직
2.자 격 세례 교인
3.제출 서류 자필 이력서, 주민등록 등본, 당회장 추천서(타교인)
4.서류 제출처 강남구 역삼동 665-1 사무국 ☎ 552-8200(내선 403)

이번 주 새벽기도 담당

	24(월)	25(화)	26(수)	27(목)	28(금)	29(토)	30(주일)
설교자/지도자	김성관/박홍국	장 훈/정장원	이재영/박영철	임현직/최홍집	이성진/변창대	윤수일/이복순B	김성준/강호숙

예배담당 안내 (7/26-7/30)

날짜	예배	설 교	사 회	기 도	찬 양
7/26	수요 I	70인의 사역 (속 10:1-20) 김성관 목사	이성진	이현직	올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호산나 찬양대)
7/26	수요 II	민 음 (히 11:6) 김익환 목사	이정훈	박효순	참가자 군병들이 (실로와 찬양대)
7/28	금요일회	김성관 목사	김준희		플루트 김유경 / 가브리엘 여성중창단
7/30	주일 I	적은 무리 (눅 12:32-34) 하종철 목사	황진섭	박철구	(예배 전 찬양)
7/30	주일 II	적은 무리 (눅 12:32-34) 장 훈 목사	안영택	김형곤	천부여 의지 없이서와 / 바이올린 에이스터
7/30	주일 III	적은 무리 (눅 12:32-34) 김성관 목사	양재욱	유상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의 / 바순 홍상현(필리핀 오케스트라)
7/30	주일 IV	적은 무리 (눅 12:32-34) 나광영 목사	정승진	고재승	심사자를 질 수 있나 의 / 트럼본 박성문(아반 오케스트라)
7/30	주일 V	적은 무리 (눅 12:32-34) 이재영 목사	김태석	안석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의 / 소프라노 김지희(한빛합창단 솔로리스트)
7/30	주일찬양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 6:14-17) 김성관 목사	김준희	박원화	현악중주 / 임아무녀 찬양대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IV 오후 1:00(국악 동시통역 예배)	본 당
	V 오후 3:00 (젊은이들이 드리는 예배)	본 당
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30	본 당
금요일회	저녁 7:30	본 당
새벽기도회	새벽 7:00	본 당

기도원 집회 안내

집 회 시 간	차 량
화요일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금요일회 저녁 11:00	금요일회 후 본당 앞 출발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부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가부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에 동시 통역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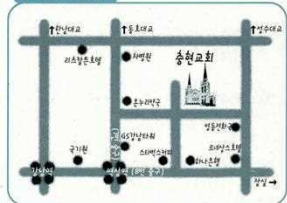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선교관 1층
	II 오전 11:00	
유 아 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 치 부	오전 10:50	교육관 207호
유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초 동 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 동 1부	오전 9:00	교육관 307호
중 동 2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 동 3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 동 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 학 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청 년 1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구 분	시 간	장 소
청 년 2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층
청 년 1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장 년 2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장 년 3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소 당 부	오후 12:15	잘 났 리 홀
사 랑 부	오전 11:00	복직관 지하1층
예배다부	오전 9:00(학평) 오전 1:00(안일)	제2교육관 1층
타 기 부	(화) 오후 8:30~오후 1:00 (금) 저녁 7:00~제복 9:30	교육관 110호
새가족양육부	오전 12:15	대 바 나 홀
충현어린이집	주간교과	교육관 107호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과	충현복지관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댄 홀

7월 충현 기도의 창

- 1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성령 통해 하시므로 십자가 복음의 불로로만 사용하시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소서.
- 2 충현의 모든 청지기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며 자신의 전부를 그리스도께 드리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 3 2006년도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 훈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며, 선교에 방관자가 없게 하소서.
- 4 1·1 전도와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실시되는 교회주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 5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교회학교 위에 풍성히 내려 주소서.
- 6 모든 새가족들이 복음의 실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음 안에서 살게 하소서.
- 7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충현복지관이 십자가 복음으로 운영되게 하소서.
- 8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동산·복지)을 십자가의 은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 하소서.

교회 요시는 길



성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김의철	김은호	노광현	이병학	이 훈
남선우	김광주	최두만	이창호	차진욱
김광남	이우철	전홍용	전홍철	김영환
이정우	김만우	김영수	김한기	김기영
최윤덕	이재민	박덕영	김정두	김정현
박종우	권명우	조종환	배준식	김달남
이인호	최희승	조영환	박철진	정정길
신상수	고재승	강창현	김영은	이광우
장정환	김준근	함철주	윤재민	정현현
안석현	김관근	김창중	김정식	김정현
김은철	전태하	김신국	전계식	김정현
장종우	전태하	석석우	구재현	송부섭
최희승	신선길	유종우	박대성	김지우

■ 부목사

이준우	정현민	박인기	류병희	김영훈
이유근	안진우	나광영	정진호	고광환
최종우	김정환	장 훈	이원택	이희석
최종우	한준우	안진원	정승진	양재욱
이정현	최희승	최정길	이재영	이정준
이광수	김준근	윤수일	황진섭	이철준
김태석	김성준	유재진	강명우	전성원
김정현				

■ 어전도사

신동주	윤윤선	한영준	김진석	홍순애
이동주	김만우	안대성	김지현	강덕원
최종우	전태하	김정현	김정환	김정희
이복순A	류대희	한성일	임태우	장영미
옥미자	이복순B	강호숙	전영희	이혜숙

■ 찬양감독 김준근

- 찬양지휘자 서준성 김현립
■ 찬양감독장 김소연 ■ 찬양연주자 장인희
■ 선 교 사 송요한